

#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66호 / 12월 5일

## 중국의 WTO 가입 1주년: 평가와 전망

### 1. 금년도 대외경제 현황과 특징

□ WTO 가입은 중국의 금년도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.

- 금년 1~10월 수출은 20.6% 증가한 2,6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기계·전자제품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, 7년 연속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함.

□ WTO 가입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.

- 첫째, WTO 가입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호전되었고,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졌음.
- 둘째, 선진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났으며, 이들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통해 외자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남.
- 셋째, 금년도 전세계적으로 IT산업과 IT제품에 대한 거품 붕괴 현상이 나타났으나, 중국의 경우 수출품목 중 IT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 영

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음.

- 넷째,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생필품 및 저가 공산품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음.

□ 한편, 중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약 5천 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했고, 그 결과 평균관세율은 작년의 15.3%에서 12%로 낮아졌음. 또한 수입 쿼터 품목을 33개에서 12개로 줄였음.

- 이에 따라 금년 1~10월 중국의 수입은 18.7% 늘어난 2,378억 달러를 기록함. 그러나 수입증가 속도는 수출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임.

□ 완만한 수입증가 속도를 포함하여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초의 기대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남.

- 첫째, WTO 가입 전 전문가들은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로 외국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결과는 그렇지 않았음.

○ 중국의 수입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상품의 2/3정도가 수출용 원자재로 관세인하 전부터 사실상 면세혜택을 받아왔음.

○ 따라서 관세인하의 충격은 나머지 30% 정도의 수입품에만 영향을 주었으며, 이들 품목은 원래 수입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이었음.

- 둘째,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의 공업생산이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.

- 셋째, 일부에서는 관세율 인하가 외국인투자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.

○ 지난 2년간 다국적 자본의 투자는 관세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자동차, 석화, IT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.

- 넷째, 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외국기업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기보다는 과거의 패턴을 유지하였음.

## 2. WTO 가입의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

### 가. 농업

□ 농업분야는 WTO 가입 후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실제 영향은 미미하였음.

- 식량과 면화의 수입량은 많지 않았으며, 옥수수와 쌀의 수입량은 하락세를 보임. 식용유, 설탕, 양모 등은 수입량이 늘기는 하였지만 수입쿼터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.
- 최근 수년간 농산물 공급이 충분하여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수입농산물과의 가격차가 거의 사라졌음.
- 또한 작물에 대한 구조조정의 성과로 수입밀을 대체하는 질 높은 소맥의 재배가 늘어났음.

### 나. 철강 및 자동차

□ 철강, 자동차를 비롯한 중공업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생산과 외국제품의 수입이 동시에 늘어남.

-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라 금년도 중국 철강제품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함. 그러나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국내 철강업체의 생산액도 상당히 증가하였음.
- 한편, 관세율이 비교적 크게 인하된 냉연박판, 열연박판, 스트레인강판 등

부가가치가 높고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나섬.

□ 자동차 수입의 경우 관세가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, 수입쿼터(80억 달러)에는 미치지 못함.

- 지난 1~9월 자동차수입은 55% 증가했는데 그 중 승용차, 지프, 미니 버스, 트럭의 수입은 각각 37%, 145.7%, 129.6%, 108.2% 증가함.

- 수입관세율 인하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고 신형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.

○ 그러나 현재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3%에 불과하므로 수요증가의 혜택은 대부분 국내 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수입쿼터가 매년 15%씩 늘어남에 따라 수입자동차의 잠재시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

○ 내년 이후 고급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.

#### 다. 섬유 및 가전

□ 섬유제품은 전통적인 중국의 비교우위 품목인바, 특히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WTO 가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.

- 일부국가들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폐하였음.

-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되었지만, 중국의 시장규모와 가격 경쟁력의 우위로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.

□ 가전기업 역시 WTO 가입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.

- 가전제품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에 기인하지만 최근 들어 제품구조 합리화, 기술 고도화 등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음.

#### 라. 정보기술산업

□ WTO 가입의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
- 그 동안 관세율과 수입쿼터의 보호를 받았던 제품(모니터, 컬러 브라운관 등)과 초기 생산단계의 제품(디지털 제품 등)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지만, 대부분의 중저가 제품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음.

- 또한 외국기업과의 제휴와 경쟁을 통해 제품경쟁력도 제고되었음.

○ 휴대폰의 경우 波導, 科健, 熊貓, TCL, 首信 등 국내 브랜드의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수입제품을 대체하고 있음.

#### 마. 서비스업

□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의 충격이 일정 정도 작용하였음.

- 소매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음. 양적인 면에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며, 특히 대형 할인점의 이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
- 또한 프랑스의 까르푸가 심양(沈陽)과 대련(大連) 지점의 지분을 100% 장악하는 등 중국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해 진출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임.

- 은행분야에서 외자은행은 이미 외환업무 취급 허가를 받았고 상해, 심천, 천진, 대련 등 대도시에서 인민폐업무가 가능해 짐.
- 아직까지 외자은행이 자본금 규모 문제로 효율적인 인민폐 업무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, 중국은행과의 경쟁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.

### 3. 내년도 대외개방 전망과 정부의 대책

- 중국은 2003년 1월부터 평균관세율 수준을 11%로 인하할 방침임. 또한 시계, 사진기 등은 쿼터제한을 취소하고 자동차, 정제유, 고무 등의 쿼터를 15% 늘림.
- 중국정부는 개방의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충격을 최소화 할 계획임.
  - 첫째, 국내산업에 대한 손실예방 경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기업의 덤핑과 규정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.
  - 둘째,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시장정보, 인력교육, 통관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함.
    -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형 노동집약형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, 독자적인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갖는 제품을 개발함.
  - 셋째, 제도개혁을 통한 소프트 투자환경을 개선함.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규범화 함. (\*\*\*)